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김새롬

■ 학습목표

- 성탄의 유래와 성탄 시기의 전례에 대해 안다.
-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음을 안다.

■ 준비물

- 떼제 노래 ‘하늘에는 영광이요(Gloria, gloria(canon))’ 음악 및 악보
- 오디오 또는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컴퓨터(혹은 기타나 키보드로 직접 반주할 수 있다.)
- 십자가와 성화(이콘), 초
- 작업지, 성경, 필기도구

※ 떼제 악보는 『주님을 찬양하라』(가톨릭출판사, 1998년)에서, 노래는 떼제 공동체 공식 홈페이지 (<http://www.taize.fr/ko>)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본 교안은 중등부(1-3학년)를 대상으로 합니다.

• 떼제 공동체란?

‘떼제’는 프랑스 부르그뉴 지방 동부에 위치한 목가적인 작은 농촌 마을의 이름입니다. 1940년 2차 대전 중 로제 수사는 이 마을에 종교와 상관없이 함께 기도하며 모여 사는 ‘떼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평화와 화합의 너른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 떼제 노래

떼제 노래는 떼제 공동체에서 기도를 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떼제 노래는 곡조와 가락이 간단하고 곡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때문에 배워서 부르는 것이 쉽고, 반복하여 여러 번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떼제 노래의 특징은 묵상의 효과를 높여 주고, 혼자일 때도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참고-http://www.taize.fr/ko)



성경에 나오는 성탄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도 있고(루카 1, 26-38), 예수님의 탄생(루카 2, 1-7; 마태 1, 18-25)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마태 2, 1-12)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탄절 유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날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고대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2월 25일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였는데, 로마제국의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이날을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가 축제로 지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다시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 축일로 정했지요. 태양신 숭배에 맞서서 ‘세상의 빛(요한 8, 12)’ 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했던 거예요. 또한 동지를 기준으로 점점 낮이 길어진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의미상 잘 맞아떨어진 것도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내게 된 배경이에요. <small>*태양력(太陽曆)의 하나. 로마의 집정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이집트의 천문학자 소시게네스(Sosigenes)의 의견에 따라 개정한 세력(歲曆)이다. 365일 6시를 1년으로 하고 4년마다 하루의 윤일(閏日)을 두었다. 후에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행의 태양력이 되었다(네이버 국어사전 참고).</small>
성탄 시기의 전례(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예수 성탄 대축일에는 ‘밤 미사, 새벽 미사, 낮 미사’ 이렇게 세 대의 미사를 드려요. 원래 교황의 성탄 장엄 미사는 베드로 대성전에서 12월 25일 낮 9시쯤에 한 번만 거행되었어요. 그런데 5세기경 성모 마리아 대성전 안에 있는 작은 경당(베들레헴의 성탄 동굴 모습으로 만들어졌다.)에서 교황님이 밤에 미사를 드리면서 밤 미사가 생겨났어요. 또 6세기 중반에는 새벽 미사가 첨가 되었어요. 12월 25일은 동방 교회에서 높이 공경 받는 성녀 아나스타시아를 기념하는 미사가 봉헌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미사 때 예수 성탄에 관한 기도문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성탄 새벽 미사로 발전하였기 때문이에요.
성탄 8일 축제	성탄은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큰 축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 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8일 동안을 축제로 정해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성탄 8일 축제 기간 중 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성탄 8일 축제는 막을 내려요.
노래 소개	오늘 함께 부를 노래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노래예요.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바로 그 고장의 목동들이었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 주었고, 그때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2, 14)라는 찬미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성경 구절은 대영광송의 가장 앞부분에도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해요.



사랑이신 주님, 대림 시기 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오늘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멘.



인사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림 시기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탄은 왜 기쁜 날인가?	성탄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흥겨운 캐럴도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요. 그래서인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성탄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는 조금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지, 과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예배 기도 진행하는 방법

- ① 예배 노래를 부르기 전 가사와 멜로디를 미리 익힌다.
- ② 교리실을 십자가와 성화(이콘), 여러 개의 촛불 등으로 꾸미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③ 성화(이콘)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 노래를 반복하여 부른다.(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묵상 기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되풀이한다.)
- ④ 예배 노래를 부른 뒤에는 5~10분 동안 침묵한다.
- ⑤ 침묵이 끝나면 예배 노래나 조용한 성가를 틀어 놓고 교사나 학생이 정해진 성경(루카 2, 4-20)을 읽는다.
- ⑥ 다시 5분 정도 침묵한 뒤, 기도 시간을 마친다.



정리 및 심화

정리	성탄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취하신 것이지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깐요.
마침 인사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성탄이 어떤 날인지 조금은 알 것 같지요?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하며, 이 기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그럼 기쁜 한 주 보내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마침 기도

사랑이신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당신을 닮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Gloria, gloria (canon)

Glo - ri - a, glo - ri - a, in ex - cel - sis De - i
 하 늘 에 는 영 광 이 요 땅 에 서 - 는 평 화

Glo - ri - a, glo - ri - a, al - le - lu - ia, al - le - lu - ia!
 영 - 광 영 - 광 알 렬 루 야 알 렬 루 야

김새롬_라파엘라
서울대학교 명일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다.